

'전북에듀페이 7일까지 집중신청'

도교육청, 지원비 신청 접수... 입학지원금·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7일까지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지원금을,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지원비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지원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학부모가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30만 원을 학부모 신청 계좌에 입금,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

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모바일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학습지원비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20만 원을, 진로지원비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30만 원을 비우체(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한 가정통신문 QR코드 또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메인 화면 '신청 및 자세히 알아보기'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안내한 문자 메시지 URL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핸드폰 소지자만 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학교에서 서면 신청

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신청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16~18세(고등단계)로, 일정 서류를 갖춰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비우체(선불카드)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되며, 수령 후 기명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제한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학생들의 선불카드 수령은 학교 도내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우편배달 중 선택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선불카드 수령은 지원비를 신청한 센터 등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이 불가하며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환수된다.

한편 전북에듀페이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해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메인 화면 전북에듀페이 신청 및 자세히 알아보기를 이용하거나,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063-239-0845~0847, 0853)를 이용하면 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북에듀페이를 신청하고 지원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원대상자들은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이 개발한 1인 미디어제작 라이브실.

수업자료 제작·방송 '한번에'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1인 미디어제작 라이브실 개발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1인 미디어제작 라이브실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전북교육가족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 과정에 필요한 시청각 수업자료 제작, 온라인 전달교육 및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실 2개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라이브실은 △4K 캠코더 △액션캠(고프로) △AV 스위처(유튜브 송출) △유·무선마이크 △노트북(데블릿) △영상편집용 컴퓨터 △책상(2400×1100×720mm) △스크린(전동) 등을 갖췄다.

교직원의 경우 교과연구회 및 학습동아리의 영상콘텐츠나 연구자료를 영상물로 제작하는 데 라이브실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학생은 미디어 활동을 통한 수행평가 및 과제 탐구, 미디어크리에이터

진로 체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AI·SW체험센터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브실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전북교육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포털(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미래교육라이브실예약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 검색 '전북교육영상'공지사항'이나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및 각급 기관(학교) 팝업존 라이브실 대역신청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장익 원장은 "현대 시대는 미디어 시대라 할 정도로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상미디어는 빼놓을 수 없다"며 "1인 미디어제작 라이브실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영상물들이 지속적으로 제작·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 '교육청 정기인사 공정하지 못한 부분 많아' 우려

전교조 전북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정기인사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SNS에는 그간 도교육청 내에서 언급되던 관료 집단의 계파가 등장했다면서, 특정 인물이 주도해 그 주변 인물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은 이미 지난해 인사의 시뮬부터 지적돼 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계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립들이 자리가동을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빨리 승진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구체적인 의혹 제보를 받았으나 개별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측근 밀반 신뢰하지 말고 이번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항공예약발권과정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원 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관광 분야 취업희망자 3위를 대상으로 토포스(TOPAS) 항공예약발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포스(TOPAS) 항공예약발권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 자격증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약/발권 시스템으로, 교육 이수 후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공 예약 및 운임, 발권까지 전반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항공 예약 2급 항공 발권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광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항공 예약 및 발권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원자리플러스센터 이상행 센터장은 "최근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달 30~31일 양일 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MEGA-US EXHIBITION 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베트남 기관·바이어·투자자 협업 우수기업 수출길 모색

전북대, '한-베 메가트렌드 박람회' 성황리 개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도 마련 우수아이디어 발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달 30~31일 양일 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MEGA-US EXHIBITION 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베트남 주요 기관과 바이어, 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를 비롯한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가 참여했으며, 전북도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4개 창업유관 기관이 함께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제품을 알렸다.

전북대에서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주)엘엔에이치랩스 (주)비엑스랩 성립지스 (주)더썬은마켓 (주)해피와 도약기 창업기업 (주)메다렌서치 (주)알에스컴퍼니, (주)엠에이엔지, (주)태영엔에스 (주)에스피에너지 등 10개 기업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코스프린 스포츠(주)에비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및 희망전복 POST-PE 입주기업인 (주)제이케이생명과학 등 2개 기업이 참여해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담담을 진행하고,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특히 2023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메

디앤리서치는 베트남의 IRIS PREMIUM과 약 20억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박람회를 주관한 사이공 이노베이션트와 전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글로벌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베트남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유니브 스타 콘테스트(UNIV. STAR CONTEST)'도 운영됐다. 양국 대학생 10팀이 참가해 서로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전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 (주)효성의 지원으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한편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10월 말 베트남 바이어 상담회를 열어 창업기업의 수출을 위한 2단계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속기관 기구·인력 재정비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처 위해... 지난 7월부터 13개 기관 대상 조직진단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제한된 인력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속기관 기구 및 인력 재정비에 나섰다. 이는 학교 현장 지원에 대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3명의 위원으로 직속기관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방문과 기관별 자체 진단을 통해 13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은 전북교육청 개청 이래 최하다.

조직진단 결과 특별위원회에서는 유·중·고 업무(팀) 통합, 기능 쇠퇴 분야 감원, 개인별 적정 업무량 부여 등을 통해 교육전문직 7명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감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중·고 업무를 통합해 전주교육문화회관 2담당(현행 2과 6담당 → 2과 4담당)과 군산교육문화회관 1담당(현행 2과 3담당 → 2과 2담당)을 통합·축소하고, 기능 쇠퇴 분야인 기관장 부속(비서)실 12명을 감원한다. 개인별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량 부여를 통해 직속기관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도모를 위해서다.

특별위원회의 조직진단 결과는 지난 30일 자체 보고회를 거쳐 기관별 인력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정된 인력은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의 확대 개편과 신설 학교 등에 재배치된다.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갈등 업무, 집적화가 효율적인 업

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안착하면 학교 업무의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고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학교에 인력을 충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직속기관 조직진단은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중심 인력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방송통신중 운영 내용 안내

도교육청, 이전 설명회... 내년부터 전주덕일중서 운영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30일 전주덕일중학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이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중이 2024년 전주에코시티로 이전하고, 방송통신중학교는 전주 덕일중으로 옮겨 운영하면서 방송통신중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덕일중 전체 교직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교무학사 등 방송통신중에 대한 이해와 지원사업,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안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송통신중 이전에 따른 전라중과 전주덕일중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덕일중으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중학교는 3개 학년에 50대 31명, 60대 94명, 70대 32명 등 50~70대가 주 연령층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 책무로서 저학력 성인 등 교육취약층의 학습지속 및 학력취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라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화상영어 홈클래스 '순항'

초6~고1학생 960여명 참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높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월 7일부터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3학년 학생 142명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24명이 참여해 전북·화상영어를 활용한 실용영어 수업을 받는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일부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821명의 학생은 원어민영어화상강의 위탁 업체를 통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화상영어 홈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최대 1대 3으로 반을 편성, 오는 12월 중순까지 주



2회 화상 수업에 참여한다. 화상영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은 "원어민과 처음으로 대화를 해보는 거라 무척 긴장되고 걱정했는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 재미있었다"면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외국여행에 가서 영어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화상영어 수업을 학교와 가정에서 이뤄지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